

다른 차원을 상상하기

개교20주년 박종원 총장 축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범은 경제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옮겨가는 문명사적 전환에 조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세기를 예감했고,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예술학교를 설립했던 선각자들의 판단은 올바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며, 한예종은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시대를 열어온 우리 학교 20년 궤적이 반듯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으며, 정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과와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 성원들 모두의 행복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양적 성장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시스템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아 학교는 이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두가 함께 나가는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예술적인 성취와 완성을 향한 우리 학교의 한결같은 정진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는 그 찬사에 앞서 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술의 완성에 끝이 없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수용자, 향유자 없는 예술의 완성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주년은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해 다가가는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술을 통해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깨우침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비탄에 빠뜨렸던 이 고민은 이제 예술의 창조자-작품-향유자를 잇는 고리는 무엇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화두에 대한 탐구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탄생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일층 도약하고 비상할 것입니다. 한예종의 진정한 도약이란 오로지 현 시기 예술의 최전선에 대한 탐구, 그 경계를 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예종의 비약은 학교의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넘어서는 예술적 실천을 경주할 때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되 그를 통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지난 20년의 교훈이자 20년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시구가 앞서 걸을수록 더욱 몸과 마음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임을 더욱 깨닫게 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한예종의 미래는 거침없되 한발 한발에 전심을 쏟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달려있습니다.